49회 신입생 워크샵 조명 인수인계서

58기 김희원, 최민지

1. 준비단계

* 신입생 2명이 전부인데다가 조명 기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라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다.
* 처음에는 단순히 조명을 켜고 끄고 효과를 주는 정도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라인 변환, 조명 설치 등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.
* 생각보다 할 일이 많고 조명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.
* 기계나 공구 다루기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.
* 조명 관련 용어 정리 (115회 대공연 인수인계서에서 가져옴)

|  |  |
| --- | --- |
| 용어 | 설명 |
| 라인 | 조명과 채널(혹은 콘솔)을 연결시켜주는 선 |
| 딸깍이 | 조명이 작동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라인. 모양은 라인과 비슷하나 중간에 on/off 버튼이 달려있음 |
| 채널 | 원형극장, 소극장 등 교내에 있는 극장들은 콘솔기기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, 조명과 채널을 연결하면 콘솔을 통해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다. 검은색 바에 적혀있는 숫자들이 곧 채널이다. (ex. 1채널, 2채널, … )  다만 율전 소극장은 배치 되어있는 기기가 없으므로 자체 콘솔을 사용함. |
| 바(bar) | 채널이 적혀있는 막대기를 바라고 함 |
| 대파 | 일반적으로 쓰이는 조명의 한 종류. 넓은 영역을 쏠 수 있다. |
| 엘립 |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하면 됨. 좁은 영역을 쏠 수 있다. |
| 에어리어(area) | 조명 영역. 어느 조명을 어느 위치에 쏠 것인지를 정할 때, ‘에어리어 잡는다’라고 함 |
| 젤라틴 | 조명은 기본적으로 흰(노란)색 빛이기 때문에, 색조명을 쓰고싶을 경우 젤라틴을 이용해서 조명의 색깔을 바꿔주어야 함. 네모난 셀로판지처럼 생김(보통 대파에 사용한다.) |
| 콘솔 | 모든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기기. |
| 큐시트 | 조명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됨. 어느 대사에 어느 조명을 사용할건지를 적어놓은 것 |
| 조도 | 조명의 밝기 |
| D. I.(Deem in) | 조명을 서서히 키는 것 |
| D. O.(Deem out) | 조명을 서서히 끄는 것 |
| C. I.(Cut in) | 밝기의 변화 없이 조명을 바로 키는 것 |
| C. O.(Cut out) | 밝기의 변화 없이 조명을 바로 끄는 것 |
| 뒤깎이 | 보통 극의 러닝타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면 기본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, 조명과 음향이 나오는 부분만 빠르게 맞춰보는 것을 뒤깎이라고 함. 공연 전날 무대설치 후에 진행됨 |

1. 조명 제반 사항 파악

* 가장 처음으로 동방에 사용할 수 있는 대파와 엘립의 개수를 파악해야 한다. 총 몇 개 작동되는지, 고장난 것은 몇 개인지 기록해두고 따로 표시해두어야 한다.
* 작동 여부를 검사할 때는 딸깍이에 연결하여 검사하면 된다. 딸깍이와 조명을 연결하는 부분이 매우 뻑뻑하므로 힘이 많이 들어간다. 장갑을 끼고 하면 좀 수월할 것이다.
* 조명 기구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작동되는 조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
* 율전에도 조명 기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율전 조명팀과 연락을 해보면 된다.

1. 대본 분석 및 큐시트 작성

* 대본이 나오면 대본을 최대한 여러 번 읽으면서 극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조명을 쓰면 좋겠다는 식으로 구상을 해놓으면 좋다.
* 조명팀에서 조명 플랜을 짜두더라도 연출진에서 원하는 분위기와 맞지 않으면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출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
* 이번 워크샵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례적으로 연출진에서 조명 플랜을 짜주었다. 조명팀에서는 연출진에서 짜 준 조명 플랜을 바탕으로 조연출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명을 쓸 것인지 상의했다.
* 이번 워크샵 ‘Almost Maine’에서는 Moose Paddy(허름한 술집)과 오로라 때 색조명을 사용하였는데 원하는 느낌에 따라 색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. 이번 워크샵에서는 젤라틴은 잘라서 한 대파당 두 개의 색깔을 내도록 설계했다.
* 큐시트는 표로 만들어 조명이 필요한 부분의 간략한 대본을 왼쪽에 작성하고 오른쪽에 어떻게 조명을 쏠 것인지 적었다. 이것은 특별한 양식이 있다기 보다는 그저 조명팀이 알아보기 편하도록 작성하면 된다.
* 큐시트를 작성해도 공연 직전 수정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두기 바란다.

1. 조명 설치

* 조명을 설치하기에 앞서 먼저 돼지코로 라인 변환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도움을 주실 선배님께 꼭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다. 우리의 경우에는 조영진 선배님께서 라인 변환하는 법을 알려주셨다.
* 라인 변환을 할 때 돼지코 부분이 잘 빠져서 몇 번씩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고정을 해 두어야 한다.
* 신입생 두 명이 전부이다보니 이번 공연 때는 감사하게도 선배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. 이소정 선배님과 조영진 선배님이 캐스트 철야 날 오셔서 조명 설치를 거의 다 해주셨다.
*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우선 조명을 천장에 걸고 라인을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시킨다. 이 전에 사용되는 조명과 라인을 꼭 확인해두어야 한다. 막상 고정을 했는데 라인이나 조명이 고장이 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매우 골치가 아파진다.
* 천장에 걸어야 하므로 사다리를 타야 하는데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 꼭 조심해서 사다리에 올라가고 주위에 사다리를 잡아주고 보조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.
*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뻰찌, 칼, 가위, 나사, 못 등 굉장히 많은 공구가 필요하다. 물론 동방에 공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가져온다면 다른 팀들이 공구를 사용할 때 기다려야 하는 일이 없으므로 여유분을 챙겨온다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!
* 설치는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리므로 라인 변환, 라인 개수 파악 등을 사전에 다 끝내놓아야 캐스트 철야 날 밤을 꼬박 새는 일이 없을 것이다.

1. 공연

* 콘솔을 이용해서 조명을 작동한다.
* 뒤깎이 때 충분하게 연습을 해두어 실전에서 실수하는 일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.
* 조명은 무대도 봐야하고 조명 기구도 만져야 하고 음향도 들어야 해 눈과 귀, 손을 모두 이용해야 한다. 음향과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어 조명을 on/off 하는 것이 중요하다.
* 조명이 많을 경우 여러 손가락을 써야 해서 작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. 그러므로 함께 틀 수 있는 조명(예를 들어 양 side 조명, 앞 뒤 조명)은 묶어서 나무막대기 등으로 고정해두면 훨씬 편하다.
* 나의 경우에는 손이 많이 떨려서 조명을 틀 때 손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져 조명이 흔들리고 깜빡이는 때가 있었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심호흡을 하면 이러한 현상이 조금 해결될 것이다.
* 조명도 함께 연기를 해야 한다. 딱 정확히 이 타이밍에 반드시 조명을 on/off 해야 한다기 보다는 분위기와 흐름을 보면서 함께 연기하듯이 조명을 작동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.

1. 마무리

* 명륜에 있는 조명이 아무래도 많이 낡다 보니 손이 떨리지 않아도 대파가 흔들리고 깜빡이는 점멸 현상이 있다. 다음 공연 때 이 점을 조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수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.
* 이번 ‘Almost Maine’에서는 오로라와 별조명이 굉장히 예뻤다. 별조명을 다음 공연 때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.
* 생각보다 배워야 할 것이 많아서 당황스럽고 어렵기도 했지만 뿌듯하고 남는 게 많은 조명팀이었다. 다음 신입생들도 열심히 공연을 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